

조선대 범인 정상화 ‘사학법 재개정’ 변수

내일 사학분쟁조정위 정기회의…법 개정땐 구재단 힘실려

오는 5월 1일 열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귀호) 정기회의를 앞두고 조선대 범인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명의 사학분쟁조정위원들 사이에서는 5월 중 조선대 범인 정상화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최근 불거진 사학법 재개정 논란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 3월로 임기가 끝난 조선대 범인의 임시아사 대신 새 임시아사를 선임하지 않고 기존 이사의 임기를 6월 30일로 연기한 것은 그 전에 조선대 범인 정상화 문제를 무마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사학분쟁조정위는 지난 1월 출범 이래 6번의 회의를 거치는 동안 조선대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결론

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학분쟁조정위는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 중인 옛 재단 측 인사들과 현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사학분쟁조정위 A위원은 “조선대 문제는 사학분쟁조정위에 올라온 4년제 대학 문제 중에서는 1순위 안간이다. 조선대 구성원들의 제안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5월 결론이 날 것”이라며 “다만 차기 회의인 5월 1일 결론이 나긴 힘들고, 5월 중에 임시회의가 한 번 더 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학분쟁조정위 정기회의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이지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가 열릴 수 있다. 지금까지 1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조선대를 비롯한 세종대, 상지대, 광운대 등 ‘임시아사 파견학교 공동 대책위원회’는 또 사학분쟁조정위 정기회의가 열리는 5월 1일 서울시 종로구청 인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조선대 법’이 정상화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할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월과 3월 두 차례 임시회의가 열린 바 있다.

하지만 B 위원은 “(5월 중 결론은) 일부 위원의 희망사항이다”며 “조선대 문제에 관해 사학분쟁조정위 내부에서 위원들끼리 의견 충돌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적은 없지만 자꾸 미뤄지는 이유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취임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손병우(서강대 총장)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사학법 원상회복 또는 폐지에 대해 거론한 적이 있다. 사학법 개정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이번 4·19 총선에 과반석 이상을 차지한 것도 조선대로선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B 위원은 “그렇다고 해도 언제까지 (조선대 문제를) 미루고만 있을 순 없다”며 “아직 한 번도 실시한 적은 없지만 다수결로라도 결론을 내야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C 위원은 “소위원회까지 꾸려졌고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5월 1일)에서 중간보고 형식의 구체적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법관 신변보호 이렇게

29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법관 신변 보호를 위한 모의 시범이 열렸다. 법정 경위들이 법정에서 판사에게 난동을 부리는 조직폭력 배를 끌어내는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판사 협박·법정 난동 빨 뜯 뿐인다

광주고법 법관 경호 지원 등 적극 대처

이달 초 광주고등법원 A부장판사 부속실에 재정(裁定)신청을 기각당한 민원인 B씨의 전화가 걸려왔다. B씨는 여직원에게 다틱하고 짜 “A부장판사를 바꿔달라”면서 A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을 퍼부었다. 여직원이 전화를 바꿔주지 않자 B씨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놀란 여직원은 B씨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A부장판사는 신변 위협을 느꼈고, 법원은 B씨의 사진을 확대해 청사 방호원

들에게 나눠주었다. 재판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협박하고 괴롭히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법 법정 안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은 모두 6명, 그러나 법관에 대한 위협은 법정에 한하지 않는다. A부장판사의 경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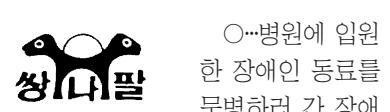
극단적인 사례는 판사에게 ‘석궁 테러’를 가한 김명호 전 교수 사건이었고, 지난해 11월에는 현직 국립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불만을 품

고 자신의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게 자신이 쓴 ‘아! 현직 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제목의 책을 보내 물의를 빚었다. 또 같은 달 법원의 재정신청 불허에 반발한 정도(61)씨가 광주고법 현관 유리창 3장을 깨는 등 난동을 부리다 입건됐다.

이처럼 ‘판사 협박’이 계속되자 광주고법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고법은 29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법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모의시범을 갖고 법정 난동 및 소란·법관 가족과 자택 경호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장애인 동료 문병 가서 도박판



○…병원에 입원 한 장애인 동료를 문병하러 간 장애인 5명이 병원에서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행.

○…광주북부경찰은 지난 19일 광주시 북구 한 정형외과에 입원한 동료 장애인의 병실에 문병을 간 뒤 병원 휴게실에서 판돈 41만원을 걸고 포커 도박을 벌인 임모(42)씨 등 하반신 1급 장애인 5명을 도박혐의로 입건 조사중.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포커를 치자 막판에 김모(50)씨가 7만원을 떠다가 김씨가 갖고 있던 현금 109만 원을 빼앗았고 김씨는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이들은 경찰에 “장난삼아 시작한 포커판에서 돈을 뺏다 보니 순간적으로 화가나 이성을 잃었다”며 선처를 호소.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입원 환자 투신 잇따라

환자 관리 ‘허점’

우울증 증세로 자살을 시도했던 50대 환자가 전남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투신해 숨졌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달에도 알코올 중독자가 투신해 숨져 환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28일 오후 9시께 광주시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 임상시험센터 앞 인도에 이 병원 환자 K(57)씨가 투신해 쓰러져 있던 것을 정형외과 의사 최모(32)씨가 발견, 응급실로 옮겼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K씨는 임상시험센터 5층 수면검사실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K씨 유족은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K씨를 7분간 혼자 방치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지난달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자살을 기도한 직후 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혼자 놔둘 수가 있느냐”고 항의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료진이 감시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나”며 “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미처 의료진이 대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병원에서는 지난달 20일에도 환자 K(39)씨가 7층 입원실 창문을 깨고 투신해 숨졌다. 당시 김씨의 유족들은 “병원 측에서 난동을 제지하기 위해 둑어놓은 암벽붕대가 풀려 환자가 병실에서 뛰어났다”며 병원 측의 관리부실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고속도로 의문사’ 약물 중독인 듯

수면제·항불안제 성분 검출…사망 2명 광주 고교 선후배

골프를 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경기도 광주 제2중부고속도로 갈길에서 숨진채 발견된 김모(50)·박모(48)씨는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광주경찰은 “박씨의 구토 물과 김씨의 체액, 휴게소 화장실에서 발견된 흥삼드링크 병에서 수면제와 항불안제 성분이 검출됐다”며 “두 사람이 당시 36홀 라운딩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체력안배 차원에서 항불안제 성분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또 1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에서 검출된 수면제의 양이 치사량인치에 대한 여부와 독극물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김씨와 박씨의 지인들에 따르면 이들은 광주 S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절친하게 지냈으며, 평소 골프를 즐겨했던 핸디캡 싱글의 수준급 골퍼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들은 “금전이나 원한관계로 인해 이들이 타살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고속도로 휴게소 CCTV에서도 검정 비닐 봉지를 가지고 화

/경찰상기자 kps@yna.co.kr

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만큼 약물에 의한 사망이 아닌가 싶다”고 관측했다.

경찰은 또 변사자들 주변에서 주사기와 발견된 점에 주목, 육인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주삿바늘 자국을 찾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김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주사기를 가져온 사실을 확인, 병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진료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변사자들의 사인과 연관성이 있는 의약품의 용처를 파악 중이다.

/경찰상기자 kps@yna.co.kr

광주일보
창사 56주년을 축하합니다.

광주일보 창사 56주년을 축하합니다.

56주년

광주일보 창사 56주년을 축하합니다.



56주년을 축하합니다.